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⑦ 열반변상도



▶ 한줄 요약
붓다의 열반을 그린 열반도는 막고굴 등의 석굴에서 자주 확인된다. 돈황 막고굴 최초의 열반도는 제428굴에 있다. 해당 도상의 붓다는 바로 누워 열반하지만 후대로 가면 붓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처럼 열반한다. 이는 범부의 죽음처럼 보여 열반의 모습이 변화된 듯 보인다.

바로 누었던 열반도, 옆으로 누운 이유는

붓다는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여 오랜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시고 그후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면서 자비를 구현하셨다. 그러면서 80세에 으르셨는데 어느 날 쿠시나가라(Kusinagara)에 도착하시어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다. 저기 사라수 아래 가사를 네 겹으로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열반(涅槃)에 들겠다." –〈불교성전〉 83p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며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드셨다. 열반이란 범어 'nirvana'의 음역으로 반열반(般涅槃, parinivana)라고도 하며 멸도(滅度)라고 한역한다. 그러므로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을 멸도에 든다고도 하며 입멸(入滅)이라고도 말한다.

원래 열반의 의미는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끄는 것, 혹은 꺼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반의 의미가 이러하듯, 붓다의 열반이 아무리 적정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라 미화할지라도 그것은 곧 인간 싯달타가 80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죽음'인 것이다.

이 '죽음' 앞에서, 붓다는 아무리 열반에 드셨다 해도 중생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붓다의 열반이 세상에 알려지자 모든 중생이 이것을 보고 듣자,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여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고 "아아, 어지신 아버지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하며,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몸을 떨며 눈물 짓고 혹은 흐느끼기도 하였다.

이때 땅과 산과 바다가 모두 지동(地震)하는데, 중생들은 서로 붙들고 위로하며 저마다 슬픔을 억제하면서 말하였다.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어서들 쿠시나가르로 가서 붓다를 뵙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겁 동안이나, 아니면 한 겁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길 간청해 봅시다." – 이운허 옮김, 〈열반경〉1 2p

이와 같은 붓다의 열반, 이생을 마감하는 붓다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중생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열반도'이다.

우리나라에는 단독적인 '열반도'나 '열반상'을 모시고 있는 사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붓다의 일대기인 '팔상도' 중의 '쌍림열반상'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법륭사(法隆寺) 5층탑 1층에 모셔진 8세기 소조(塑造) 열반상(涅槃相) 군상(群像)이 규모나 표현성에서 유명하다.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에는 많은 양의 변상도가 그려졌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시대 마다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미술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혹은 사회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열반도는 2세기 인도 간다라 미술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연운항(連云港)의 공망산(孔望山) 마애상과 신장(新疆)의 키질 석굴에서 볼 수 있다.

막고굴의 현존하는 최초의 열반도는 북주(北周)시대의 것으로 제428굴의 서쪽 벽면의 북쪽 벽화로, 탄생, 항마, 설법도와 결합되어 그려져 있다. 침대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누운 붓다의 몸에는 두광과 신광이 있는데, 빛을 화염 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견 가사를 입고, 네모난 베개를 베고 있으며 화면 맨 위에는 흰 꽃이 핀 네그루의 사라수(娑羅樹)가 있고 그 아래에는 흰 옷을 입은 11명의 평범한 인물이 눈살을 찌푸리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왼쪽의 두 번째와 오른쪽의 첫 번째 인물은 측면상으로 콧대가 높게 그려졌으며, 옷차림과 두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제자들과는 구별되며 혹 애도하러 온 말라족(Mallas) 인물인지도 모른다. 붓다의 머리맡에 있는 비구와 발 옆에 있는 대가섭을 제외한 열두 제자는 모두 두광이 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거나 가슴에 대고 애통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화면은 두꺼운 색채로 덥혀있으며 거친 선으로 인물의 형상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처리하고 있다. 수대에는 붓다의 발에 예배하는 가섭존자, 마지막 제자 수밧다, 금강역사, 새와 동물, 천신과 보살을 비롯해 여래형의 인물도 등장하는 등 등장인물의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제428굴 열반도는 비구와 애도하는 말라족만 보이고, 천산이나 보살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 불전도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7세기에 들어와서 제332굴이 조성된 698년경까지 약80여 년간 돈황석굴에는 50여 점의 〈열반경〉 사본(寫本)이 장경동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북조에서 수(隋) 말기 경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후 사본수는 감소했지만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거쳐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을 요약한 절초본(節抄本)이 많이 서사(書寫)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나라 시대에 이르러 막고굴 열반도의 수가 급증했고, 불전도 중의 하나인 열반도에서 단폭 형식의 열반변상도로 일거에 바뀌었다. 막고굴 제420굴과 제295굴의 열반도가 그런 경우이다. 붓다의 누워있는 자세가 달라졌는데, 이전 북주 시대의 하늘을 향해 반듯이 누운 자세는 평민의 죽음처럼 보여 '열반'의 의미와 맞지 않아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다라와 바미안 양식에서 보이는 오른팔을 접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차용하고 있는데, 마치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붓다가 수십 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즐겁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제420굴 상부의 북측 가운데 열반상은 밀집 형태의 구도로 그려졌으며 장방형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보살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누각과 사라수가 있으며 불길이 솟구치고 있다.

제295굴의 열반도는 붓다가 붉은 가사를 입고 있으며 머리맡에 보살형의 인물이 앉아있는데 연화좌에 발을 디디고 있으며, 붉은 가사를 입고 머리에는 보석 장식을 하고 있다. 이 변상도는 앞의 변상도와는 달리 사물의 외곽을 가는 필묵 선(線)으로 표현하고 그 안을 색으로 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이 시기보다 좀 앞선 530년경에 사혁(謝赫)이 제창한 논화육법(論畵六法) 중의 골법용필(骨法用筆; 붓으로 선을 긋다), 수류부채(隨類賦彩; 대상에 따라 색을 칠한다)의 방법을 따르고 있음이다. 이는 서역에서 들어온 요철법(凹凸法) 혹은 음영법(陰影法)이라 불리던 불교 회화양식이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 전통 필묘법(筆描法)의 회화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428굴의 인물 표현을 보면 거칠고 투박한 선과 두터운 채색을 통하여 입체적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제295굴은 인물의 묘사를 가늘고 유연한 모필선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채색을 옅게 함으로서 선묘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회화는 선묘를 위주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동아시아 회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불교회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필히 선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으로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원래 초기 인물화에서의 선을 철선(鐵線描; 철사줄처럼 가늘고 뻗뻗한 선)이라 하며, 이것이 육조시대 고개지(顧愷之, 345~406)에 이르러 춘잠토사선(春蠶吐絲線; 봄 누에가 실을 토하듯 한 유연한 선)으로 바뀌었다. 제295굴의 인물 외곽선이나 의문선(衣文線)이 이와 유사하다.

당대(唐代)의 오도자(吳道子, ?~792) 이르러 다시 한번 변하는데, 이를 오대당풍(吳帶當風) 혹은 난엽선(蘭葉線; 난초를 그리 듯 선의 강약 변화가 있는 것)이라 하며 이후 중국의 송, 원, 명, 청이나 우리나라 고려, 조선의 불화에서도 이 선을 추종하였다.

또 다른 독특한 인물화의 선묘로는 제428굴에서 보여지는 붓다의 가사 표현으로 마치 일렁이는 물결을 그리듯이 가는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 그리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방식은 불교미술 도입 초기 삼국시대 조불흥(曺不興, 222~280)이 즐겨 사용하였음으로 이를 조의출수(曺衣出水)라고 하는데, 이는 인도의 복장 형태 즉, 엷은 천을 몸에 휘감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옷 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인도 초기 불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통일국가를 이룬 수대의 열반도는 서방적인 간다라 도상에 보다 가까워졌으며, 중국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428굴 열반변상도. 북주시대 조성됐다. 붓다가 바로 누워서 열반하는 모습이 표현됐는데, 이는 후대로 가며 옆으로 누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막고굴 최초 열반도 428굴서 확인
북주시대 조성… 바로 누워서 열반
옆으로 누운 열반도는 수代 그려져
범부의 죽음처럼 보여서 변화된 듯
열반변상도, 中필묘법 변천사 확인
당시 사회상 반영, 문화 연구 도움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295굴 열반변상도. 수나라 시기 조성됐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